

충북균형발전소식

2022년 8월호 e-letter

발행인 원광희 발행처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15) T.043-220-1190, 220-1194 www.balance.chungbuk.go.kr

충북의 대응방안

01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확정

충북도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1,104억원 투자!

충북도와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제천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이 2022~2023년 동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104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 7,500억원)으로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 계정의 95%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배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돋우는다는 취지다. 매 회계연도(2023년 이후 1조원) 기준 인구감소 지역은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으로,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충북은 출산과 보육, 문화·관광 분야 등 총 51건의 사업을 발굴·제출했으며, 올해부터 2년간 도내 6개 지역에 1,104억원 배분이 확정됐다.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A~E)으로 기금을 차등배분하게 되는데 도내 지원 대상지역의 경우 A등급은 없고, B~E 등급을 받아 최소 112억원, 최대 168억원을 받을 예정이며, 광역계정으로서 충북은 278억원 배분됐다.

주요사업으로 제천 '더 오래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사업', 보은 '온-누리 플랫폼', 옥천 '대청호 생태관광지 연계 프로젝트', 영동 '힐링관광지 전망대', 괴산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단양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등이 있다.

충청북도는 기금 운용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및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 대상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배분금액 규모

등급 A 4곳(5%)	2022년	90	2023년	120	210억 원
B 13(15)		72		96	168
C 39(45)		60		80	140
D 18(20)		54		72	126
E 15(15)		48		64	112



출처 : 연합뉴스 홈페이지(www.yonhapnews.co.kr)

02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옥천·괴산군 선정 쾌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옥천·괴산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플랫폼을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이다. 또한, 지역으로의 이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생활인프라+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활거점 조성 추진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전국 70개 시·군(충북도내 5개 지역 :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서면·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등 3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충북의 옥천·괴산군을 포함해 10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옥천군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은 안남초등학교 교육이주자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 안착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생활체육공간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괴산군 ‘감물면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사업’은 감물초등학교와 오성중학교 등 지역 내 학교 살리기를 위한 도서관,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귀농단체(모하농, 흙사랑 등)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도내 지역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03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충청북도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4개 시·군에 37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상대적으로 발전정도가 낮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간(2017~2021)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추진됐으며, 5차년도인 작년 연말에 성과 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산업, 문화, 관광 등 부문별 선제 투자로 기업유치, 고용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인센티브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차등 지급했으며, 1위를 차지한 증평군이 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10억원, 영동군 8억원, 옥천군 7억원 순으로 지급됐다.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사업, 지역의 관광거점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도관련부서 실무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시·군별로 선정된 사업내역은 별천지 워터 스퀘어 조성(증평군), 제천산업단지 회전교차로 설치(제천군), 숲에너지센터 활성화(영동군), 옥천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옥천군) 등이다. 각 사업은 실시설계,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착수해 2024년에 완료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연차 평가 시행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며, 사업 관리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도 행복마을사업 2단계 선정평가 실시

충청북도가 2022년도 행복마을사업 1단계 추진 마을 19곳을 대상으로 2단계 행복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를 최근 실시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행복마을 1단계 사업은 주민 공동체 스스로 화합과 소통으로 마을의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마을 주민의 참여와 관심, 사업추진 노력, 2단계 사업추진 의지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올해 2단계 행복마을 선정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총 2번의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이번 현장평가는 민간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평가했다.

최종 발표평가는 10월 중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리는 기간에 괴산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발표 외에 축하공연 등을 진행해 주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복마을사업은 현재까지 총 161개 마을이 참여해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행복한 마을을 꾸려감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비는 1단계 5백만 원으로 시작해 현장 및 발표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비 1~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 5천만원(2개 마을), 3천만원(10개 마을), 1천만원(7개 마을)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뜻깊은 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마을별 밴드를 통해 변화된 고향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 출향인들에게도 반응이 매우 뜨겁다.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보은군 '스포츠 강군'

하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하계 전지훈련 시즌이 돌아오면서 수많은 전지훈련팀이 보은으로 몰려들고 있어, 명실상부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만 육상을 비롯한 펜싱, 축구, 야구 등 6개 종목의 27개팀 650명이 방문해 보은군 속리산 일원과 스포츠파크 등으로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8월에는 씨름, 육상, 펜싱 등 보은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와 연계해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보은군을 찾고 있어 대회 개최 및 훈련팀 유치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속리산 산악훈련장은 여름철 지역 온도가 낮은 탓에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지녀 전국 육상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에는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조성된 보은 스포츠파크 등 종합체육시설이 갖춰진데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이 우수해 전지훈련장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육상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을 비롯한 펜싱 꿈나무 선수단, 중등·고등·실업팀 육상 선수단이 보은군을 찾는 등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보은군은 이달까지 75개팀 1,500여명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식당은 전지훈련 선수로 즐비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은 '스포츠메카,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전지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보은군 홈페이지(www.boeun.go.kr)

02

증평군 율리 별천지공원

‘물놀이 공간’으로 변신!

증평군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성과급(도비) 12억원을 확보하며, 율리 별천지공원 내 워커 스웨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인 별천지공원은 증평군의 최남단인 증평읍 율리에 위치한 중부권 최대 녹색 쉼터($53,593\text{m}^2$)로 숲속 놀이터, 피크닉장, 하늘정원 등을 조성한 복합휴양공간이다.

좌구산 휴양랜드의 초입부에 위치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전반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삼기천과 좌구산 등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구릉지형으로 카페–식당, 숙박시설 등 소규모 상권을 형성한 관광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증평군은 내년까지 2년간 별천지공원 내 체험·즐길거리 확대를 위한 친수체험놀이(바닥분수) 공간을 조성하고, 광장 주변에 자연수+인공수(조형나무)를 결합한 LED 경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증평군은 대상지와 인접한 별천지 숲 인성학교과 연계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북부권의 에듀팜 벨포레 관광단지와 남부권 좌구산 휴양랜드를 지역의 양대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각 시·군별 홈페이지
- 연합뉴스(22.08.16), ‘인구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 충청북도 오늘의 道政報道 (22.08.01.~22.08.31.)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출처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